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wspaper.org

제254호 | 2018년 8월 9일 ~ 8월 13일 | 값 500원

ISSN 2005-8217



발행인 : 김인식 편집인 : 김인식 사원사 편집 : (주)네트웍미디어
저술 : 노동자 연대 발행 : 연월일(창간호) : 2009년 9월 14일
인쇄인 : (주)이비디 이비디 등록번호 : 서울 430874 (주20)
등록연월일 : 2009년 1월 12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하월당리동 946-46 4층
전화 : 02-777-2792 팩스 : 02-049-2791
지보 : 02-777-2791 E-MAIL : ws@wspaper.org



대구가톨릭

임금 인상 추진

그림/하서/요

빅데이터의료원 노동자들

의상과

비서 이행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동자들이(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대의료원분회 조합원 900여 명)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노조 설립 이후 반년 만에 투쟁에 나섰다. 대구가톨릭대의료원 38년 역사상 첫 파업이다. 그간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임금 20퍼센트 인상, 주 5일제 시행, 시차근무 폐지, 불법파견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는 대구의 대학병원 중 임금이 가장 낮습니다. 저는 처음 입사했을 때 받은 기본급이 110만 원이었어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죠. 반면, 다른 대학병원에 입사한 친구는 150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입사 첫해에 받은 월급과 입사 10년차 선배의 월급 차이가 20만 원밖에 안 났어요. 임금 인상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해요.”

외래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시차근무’ 때문에 매우 불규칙하게 근무해야 했다. 병원 측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해 일을 시킨 것이다.

시차근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한 시간은 다른 날에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일하면 연장근무 수당도 안 줍니다. 출근하다가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집에 가는 일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문제점을 앞서 보여 주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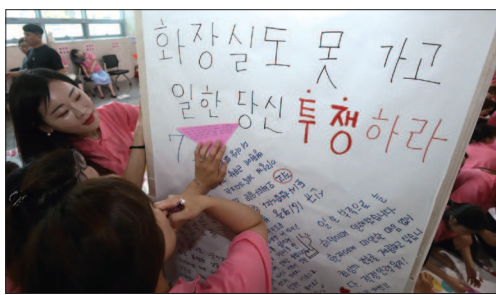
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쥐어짜 병원은 큰 이윤을 얻었다. 2015년 대구가톨릭대의료원은 흑자 171억 원을 기록해 지역 상급종합병원 16개 중 수익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 덕분에 막대한 이윤을 챙겨온 병원 측은 노동자들을 천대했다.

“노동자들을 위한 직원 식당도 없어요. 반면, 외대 교수들을 위한 전용 식당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죠?”

“얼마 전 의사들의 월급은 우리 모르게 44퍼센트나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금은 인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환자들의 안전도 안중에 없이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



김종우

을 강요해 왔다.

“시간외근무 인정해 달라고 하면 환자 돌보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지금 퇴근하래요. 가톨릭 재단이라고 걸으려는 생명 존중을

내세워도 이런 걸 보면 도무지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지난해 12월에는 병원 측이 노동자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한 것이 폭

▶ 2면으로 이어짐



계속되는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
발전사 비정규직, 철도 비정규직, 한국잡월드, LG유플러스

3면

여성 천대에 항의하는 한국역사상 최대 규모 여성 행동

4면

올여름 폭염과 자본주의

2면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하는 비정규직 표준임금제

2면

★ 계속되는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

★ 여성 천대에 항의하는 한

★ 올여름 폭염과 자본주의

★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하

여성 위업

하다

발전사 비정규직, 철도 비정규직, 한국잡월드, LG유플러스

한국역사상 최대 규모 여성 행동

이

는 비정규직 표준임금제